

판소리 유파전 '만파식적(萬波息笛)'

14일 고창 동리국악당서 경기민요·부채입춤·궁중무용 등 무료공연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만파식적(萬波息笛)'을 주제로 오는 14일 오후 7시, 동리국악당에서 김수연·송재형 명창과 동리문화예술단의 부채입춤, 경기민요, 남도민요, 궁중무용 등으로 엮어 2018년 판소리 유파전을 개최한다.

첫 무대를 '여는 마당'은 어린이동리문화예술단의 가요연주 '가얏고 사랑'과 디디의 '부채입춤', 만정 김소희 명창이 작곡한 신민요 '상주아리랑', '들국화' 등을 소리꾼이 흥겹고 경쾌하게 시작한다.

이어 '남는 마당' 춤본향은 궁중무용의 정제미를 함축하여 표현한 춤 '춘앵전', 액을 풀어내는 무속의식에서 비롯된 '살풀이춤', 양손에 짚을 짊어지고 추는 '검무' 등을 선보인다.

또한 경기민요 메나리조(농부머리 김을 때며 부르던 일종의 토속민요)의 '정선아리랑', '한 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등과 육자배기 조(남도민요조라고 불리는 '육자배기', '자른 육자배기', '개고리 타령' 등으로 무대를 장식한다.

'푸는 마당'은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명창 송재형, 고수 권혁대), '홍보가' 중 홍보가 매 맞는 대목(명창 김수연, 고수 강형수)을 애잔함과 극적인 긴장감을 현상감 있게 들려준다.

또한 경기민요에 의한 춤 경기풍류는 신윤복의 여속도첩 '중잠' 입은 여인을 묘사한 춤 '느싯타령'과 허튼춤, 입춤으로 불리던 우리춤사위를 경기민요 창부타령에 맞추어 인간의 미묘한 감정을 나타내고 인생의 암숙기에 삶의 희노애락을 반추한 춤 '풍월도'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남도민요인 금강산 타령의 웅장하고 활달함을 부채로 풀이한 '금강산 부채입춤', 성주풀이의 흥겨움을 긴 수건에 담아 즉흥성을 강조한 '성주풀이 수건춤'을 남도민요의 호흡에 맞춘 유연성과 신숙성 있는 장단유희로 우리 국악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흥겨운 우리 국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판소리 유파전 '만파식적'의 공연 관람료는 무료이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책 읽는 입실' 작은도서관 활성화 탄력

전라북도 주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선정
다독다독과 지사랑·필봉 작은도서관 등 3개소

입실군이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올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관내 작은도서관 3개소가 공모·선정됐다.

이 사업은 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및 문화적 기능 확대와 도서관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공·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에서는 다독다독과 지사랑, 필봉 작은도서관 등 총 3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다독다독 작은도서관 '어린이코딩교실-생각한다는 건 뭘까?' ▲지사랑 작은도서관 '책으로 만나는 감성바나나' ▲필봉 작은도서관 '지역민을 위한 참살이 놀이터'이다.

군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진행 및 모집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작은도서관에서도 수준 높은 양질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에서 주민들이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독다독 작은도서관에서는 (사)어린이



입실군이 2018년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와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책 고치기, 내만의 작은 영화관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홈페이지나 다독다독작은도서관(☎640-2937)로 문의하면 된다.

/입실=진영 기자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

남원백두대간생태교육장서 내달 19일까지 특별전

남원시는 오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 남원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2018여름방학 특별기획 '반딧불이랑 떠나는 세계곤충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은 청정남원과 곤충을 주제로 해회귀곤충생태관, 반딧불이생태관, 곤충표본관, 새곤충놀이관 등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회귀곤충생태관에는 국내 최초로 폴리앗투스대왕꽃무지와 웨스트우드붉은턱사슴벌레가 전시될 예정이며, 헤라클레스장수풍뎠이, 나뭇잎대벌레 등 14개국 50여종 2,000여 마리의 아름답고 신비한 곤충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특별전의 주인공인 '자이언트반딧불이'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선사할 예정이며, 동남아시아의 살아있는 '투코토리니소스풍구리'는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소풍구리의 소풍 굴리는 생생한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물놀이시설, 모험 체험시설, 미니동물농장 등이 마련되어 있어 특별전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되었으며,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휴관일 매주 월요일)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 및 안내 사항은(www.namwon.go.kr/tou)에 확인하거나 남원시청 산림과로(063-620-5753) 연락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해리면 월봉마을 책마을 해리(구 나성초교)가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었다.

고창군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해리면 월봉마을 책마을 해리(구 나성초교)가 '2018년 마을공방 육성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의 이번 공모사업은 PPT발표 심사 등을 거쳐 전국에서 지자체 8개소가 선정됐다.

'마을공방'은 개인주의 심화와 노인 소외문제, 세대 간 갈등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 단위 거점 공간이다.

이번에 선정된 '책마을 해리 마을공방 사업'

은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 공방 프로젝트로 다양한 인문, 예술 공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 조성, 지역 학교와 만나는 움직임은 예술 공방, 책 학교 인문학탐험토크 프로그램을 확보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인구유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문화예술형 책마을 해리 마을공방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슬럼화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모이는 소통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마을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